

서울환경상 대상 수상

-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 -

협회는 6월 5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서울환경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환경상이란 서울시에서 서울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및 단체들을 발굴하여 주는 상으로 귀중한 재활용 자원인 스티로폴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해온 본 협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날 서울환경상 시상식은 사회자의 개회로 국민의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양대 김윤신 교수의 서울환경현장 낭독, 환경기획관의 경과보고후 시상식이 거행됐다. 환경시민운동부, 환경기술부, 환경보전부, 자원재활용부 등 4개분야에서 대상 1명과 우수상 각 분야 2명, 장려상 각 분야 3명 등 21명에게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대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 전달됐다.

■ 대상은 본 협회가 차지했으며 ■ 우수상에는 • 환경시민운동부 (사)녹색교통운동/ 삼성전자(주) • 환경기술부 (주)그린기술산업/ 최환세(동아건설산업(주)기술연구소) • 환경보전부 서대문구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서극수(제일제당(주)김포공장) • 자원재활용부 금강개발산업(주)현대백화점/ (사)한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등에서 각각 차지했으며 ■ 장려상에는 • 환경시민운동부



▲ 21명의 제2회 서울환경상 수상자들



▲ 서울환경상 대상을 받고 있는 협회의 우종일 회장

서울특별시산악연맹/ 두산환경센터/ 서형숙 • 환경기술부 문정웅(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환경보전부 현대자동차서비스(주)남부사업소/ 김원태/ 선상선 • 자원재활용부 광장현대3단지부녀회/ 삼풍제지(주)/ 권금택(반포본동 새마을금고) 등에서 각각 차지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린 우수 재활용단체라는 평가를 받은 협회는 서울시 각 구청에 감용기 구입비 일부 지원, 스티로폴 재생품의 수출 협조 및 비축

창고 운영, 가전대리점을 통한 스티로폴 가전 완충재 역회수 재활용 공동사업 전개, 페스티로폴 위탁처리 업체 지원, 가락동 시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감용설비 지원, 어린이 스티로폴 재활용 현장 견학 실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각종 환경행사에 스티로폴 재활용 기념품 지원, 협회보 '환경사랑' 배포 등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재활용 실적을 93년 14%에서 97년 36.3%로 크게 증가시켰다.

우종일 회장은 "이번 수상이 앞으로 스티로폴 회수·재활용 운동을 통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활동해온 이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위원장 이기홍)에 전달, 자녀 장학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탁했다.